

제17894호 2판
2007년 10월 27일 토요일



'이산'의 박지빈



'로비스트'의 남지현, 박은빈, 이현우. <왼쪽부터>

“시청률? 우리에게 물어봐” 아역 스타 전성시대

‘국민 여동생’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문근영은 지난 2000년 드라마 ‘가을동화’에서 송해교의 이역을 맡으면서 스타덤에 올랐다.

‘리틀 소자섭’ ‘리틀 조승우’로 불리는 아역스타 유승호는 요즘 시청자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배우다. 인기를 모으고 있는 사극 ‘왕과 나’에서 성종의 어린 시절을, ‘태왕사신기’에서는 배웅준이 맡은 담덕의 어린 시절을 연기했다.

최근 긴 호흡으로 방영되는 사극과 수십억원을 들인 대작들이 속속 제작되면서 주인공들의 어린 시절을 연기한 아역 탤런트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인공 어린 시절 우리에게 맡겨요

‘사극의 시청률은 아역 탤런트들에게 물어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최근 방영중인 사극에서 아역들의 비중이 크다.

영화 ‘집으로’에서 할머니에게 “켄터키 치킨을 사달라”고 조르던 5살 꼬마에서 어느덧 14살 소년인 유승호는 ‘태왕사신기’와 ‘왕과 나’에서 강한 인상을 심어줬다.

드라마 ‘부모님전상서’에서는 자폐아 연기를, ‘불멸의 이순신’에서는 이순신의 어린 시절을 연기하기도 했던 유승호는 영화 ‘마음이’에서는 당당히 주역을 꿰차기도 했다.

최근 경쟁 드라마인 ‘로비스트’와 ‘태왕사신기’에 잇따라 출연했던 박은빈도 탄탄한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태왕사신기’에 문소리가 맡은 ‘불의 신녀’ 이하의 아역으로 출연한 박은빈은 로비스트에서는 장진영의 언니로 출연하는 유선의 어린시절을 맡았다. 박은빈은 이미 드라마 ‘누나’, ‘강남 얼마 따라잡기’ 등에서 푹 부러진 연기를 보여준 아역스타다.

한류 열풍의 진원지인 드라마 ‘대장금’의 어린 장금 역을 맡아 시청자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조정은은 사극 ‘왕과 나’에서 내시 양성소의 교육관 최참봉의 딸인 버들의 아역으로 출연했다.

‘허준’ ‘대장금’의 이병훈 PD가 제작하는 사극 ‘이산 정조’에서는 정조의 어린 시절을 맡은 박지빈의 연기가 눈에 띄었다.

드라마 ‘완전한 사랑’ ‘내 남자의 여자’, 영화 ‘안녕 형아’ ‘아이스케키’ 등을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은 박지빈은 아버지 사도재자가 뒤주에 갇혀 죽어가는 장면에서 열연,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밖에 ‘왕과 나’에서 주인공 처선의 유년기를 연기한 주민수, ‘로비스트’에서 송일국과 장진영의 아역으로 출연한 이현우와 남지현 등도 눈에 띈다.

▲방송 내내 사랑받는답니다

사극 등에서 주인공의 어린 시절을 맡은 아역들이 초반에 출연하다 사라지는 데 비해 주인공들의 딸이나 아들로 출연하는 아역들은 방송 종영까지 시청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

올해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고맙습니다’에서 에이즈에 걸린 ‘봄이’로 출연했던 서신애는 깜찍한 연기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수천대 1의 경쟁을 뚫고 박신양과 함께 영화 ‘눈부신 날에’를 촬영하기도 했던 서신애는 친구, 강부자 등 관록있는 연기자들과 호흡을 맞추며 멋진 연기를 보여줬다.



‘고맙습니다’의 서신애.

인기리에 종영한 주말 드라마 ‘행복한 여자’에서 여주인공의 딸 은지로 출연했던 박사랑은 깜찍한 외모로 청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오현경의 컴백작으로 화제를 모은 드라마 ‘조강지처클럽’에서 오현경의 아들 철이역을 맡은 강이석, CF 등을 거쳐 드라마에서도 사랑을 독차지한 정다빈 등도 눈길을 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10 BOX OFFICE

순위	제목	전국관객	전국누계
1	바르게 살자	45만8천834	53만8천352
2	공녀	41만6천551	51만1천308
3	레지던트 이블 3	18만3천376	21만7천21
4	어깨너머의 여인	10만7천882	13만8천332
5	행복	7만2천477	112만6천482
6	라시어워 3	5만9천709	73만5천390
7	카미 베토벤	5만601	18만9천149
8	버킹햄 제인	3만6천570	18만4천148
9	내니 다이어리	2만8천193	46만7천462
10	브레이크 워	2만2천363	14만7천801

(단위:명)
(자료제공:영화진흥위원회)

순위	제목	방송국	시청률
1	대조영	KBS1	30.8
2	미우나 고우나	KBS1	30.2
2	태왕사신기	MBC	27.9
4	무한도전	MBC	24.7
5	머니 전성시대	KBS2	24.6
6	왕과 나	SBS	23.0
7	황금신부	SBS	20.8
8	이산	MBC	19.2
9	이현동 마님	MBC	18.6
10	KBS뉴스9	KBS1	17.1

(단위:%)
(자료제공:TNS리서치)

순위	제목	장르
1	오션스13	드라마
2	만남의 광장	코미디
3	스피디맨 3	액션
4	에반 올마이트	코미디
5	제9중대	드라마
6	기담	공포
7	300	액션
8	두사람이다	공포
9	해부학교실	공포
10	넥스트	SF

(자료제공:영화이음)

순위	제목	가수
1	거짓말	빅뱅
2	텔미	원더걸스
3	매일매일	V.O.S
4	사랑은 맛있다♡	휘성
5	사랑 하나면 돼	백지영
6	착한 거짓말	이승기
7	천둥	F.T.O일렌드
8	투명한 눈물	먼데이키즈
9	키 작은 꼬마 이야기	하하
10	뚝뚝 남자	임투열

(자료제공:멜론)

컴백 박진영 “6년만에 그림던 무대 다시 올라요”

프로듀서 겸 제작자 박진영(35)이 6년만의 가수 복귀 계획과 설렘을 JYP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11월 15일 음반을 발매하는 박진영은 “6년간 프로듀서로 살다가 다시 가수의 마인드로 돌아오니 낯설다”며 “이제 저는 잠시 여러분께 돌아가려 한다”고 운을 폈다.

그는 “6년 동안 너무나 무대에 서고 싶었지만 미국 진출이란 숙제를 어느 정도 풀기 전에는 이 꿈나무들을 두고 돌아갈 수 없었다”며 “이제 이들의 데뷔 준비를 다 마쳤으니 6년간 조금씩 준비해온 내 7집을 들고 그림던 무대에 다시 선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새 35살이 됐다”며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30대, 걱정도 많지만 지난 6년간 매일 이 순간만을 기다리며 준비했으니 한번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타이틀곡은 3년 전 써놓고 행여 악보를 잊어버릴까 악보를 회사 금고에 보관했다는 ‘내가 사는 그림’.

그가 언급한 꿈나무는 미국 데뷔를 앞둔 민(Min), 임정희, 지-소울(G-Soul). 민은 유명 프로듀서 릴 존(Lil Jon), 임정희는 힙합계 스타 아웃캐스트(Outkast)의 빅보이(Bigboi), 지-소울은 세계적인 R&B 뮤지션 R.켈리(Kelly)와 손잡고 음반 제작을 한다.

박진영은 제작이 거의 끝난 민의 음반 수록곡 중 타이틀곡 ‘보이프렌드(Boyfriend)’를 비롯한 10곡이 나와 릴 존의 공동작곡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릴 존, 빅보이, R.켈리 모두 자신들의 돈을 투자하며 우리 가수의 음반을 제작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한 곡 제작할 때 받는 돈이 1억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모두 10억원 가까이 투자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501-711)
회장 許宰皓
사장 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榮
대표전화 2200-500-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홈페이지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팩스 222-4918 총무부 2200-511
편집부 2200-639 (팩스 222-8005)
정리부 2200-616 광고부 2200-521
경제부 2200-617 (팩스 227-9500)
사회1부 2200-618 디자인 2200-536
(팩스 222-4267) 사업2부 2200-552
사회2부 2200-619 문화사업국 2200-541
(팩스 227-0118) (팩스 222-0195)
문화생활부 2200-626 판매부 2200-551
어문매체부 2200-628 (팩스 227-9500)
체육팀 2200-627 서울지사
사진부 2200-690 02-773-9331
조사부 2200-570 (팩스 02-773-9335)
구독료 월 8,0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가(1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세계스타·세기보청기

까다로운 토끼씨가 선택한
세기보청기

난청해결전문가 세기보청기
미세한 소리도 놓치지 않는 첨단 디지털 기술로 모든 난청을 치료합니다.

세계스타·세기보청기
www.dogday.co.kr

무엇보다도 가격과 성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상담전화 1588-8499 | 080-222-0100